

入聲의 歸屬 및 消失 過程에 대한 見解 分析*

裴銀漢**

◁ 목 차 ▷

- I. 緒言 : 聲調 概念의 認識 段階
 - II. 調類와 調值 問題
 - III. 入聲의 歸屬 問題
 - IV. 入聲韻尾의 弱化 및 消失 過程
 - V. 結語
-

I. 緒言 : 聲調 概念의 認識 段階

“何謂四聲?”

“天子聖哲是也。”

南朝의 梁·高祖(蕭衍, 464-549)와 周捨(469-524)가 聲調에 관하여 나는 대화이다. 漢末에 불교의 전래와 더불어 유입된 梵語(Sanskrit)와 聲明¹⁾의 영향으로 중국어의 발음 자체를 분석하는 인식이 태동한 이래로, 南朝 시기에 이르러 당시의 문인학사들에게 聲調라는 개념은 이미 더 이상 생소한 대상이 아니었음을 위의 대화를 통해 엿볼 수 있다. “四聲이라는 것이 무엇이나?”라는 高祖의 하문에, 그의 총신인 周捨는 굳이 학술적이고 장황한 설명보다는 ‘天·子·聖·哲’이라는 例字로 각각 ‘平·上·去·入’으로 대별되는 四聲의 차이를 명확히 제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울러 君主의 구미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네 글자를 조합해 내었다. 君

* 이 연구는 2012학년도 단국대학교 대학연구비 지원으로 연구되었음.

** 단국대학교 문과대학 중어중문학과 부교수.

1) 聲明 : 工巧明·醫方明·因明·內明과 더불어 五明으로 통칭되는 고대 인도 브라만 계층의 필수 교육 과정이었다. 五明 중에서 聲明은 音韻·文法·訓詁 등에 관한 학문을 지칭한다.

主의 하문에 즉석에서 四聲의 例字로 의미를 담아낼 수 있는 文句를 조합할 수 있을 정도로, 당시의 문인들에게 聲調는 이미 보편화된 개념이었던 것이다. 高祖(武帝)와 周捨의 대화가 수록된 〈沈約列傳〉의 전후 맥락은 다음과 같다.

又撰《四聲譜》，以爲在昔詞人累千載而不寤，而獨得胷衿，窮其妙旨，自謂入神之作。高祖雅不好焉。帝問周捨曰，“何謂四聲？”捨曰，“天子聖哲是也。”然帝竟不遵用。

[沈約은 또한 《四聲譜》를 편찬하였는데, 예전의 문인들은 수천 년 동안이나 깨닫지 못했던 것을 자기만 홀로 터득하여 그 오묘한 이치를 통달하였다고 여기고는, (자신의 《四聲譜》에 대하여) 입신의 경지에 이른 저작이라고 자평하였다. 高祖는 이를 심히 탐탁지 않게 여겼다. 高祖가 周捨에게 “四聲이라는 것이 무엇이나?”라고 묻자, 周捨는 “天·子·聖·哲이 바로 그것입니다.”라고 답하였다. 그렇지만 高祖는 여전히 이를 좇아 쓰지 않았다.] 2)

상기 〈沈約列傳〉에 기술된 내용에 근거하면, 당시 沈約·謝朓·王融 등과 함께 빼어난 문재로 竟陵八友의 일원이기도 했던 蕭衍(高祖)은 여전히 비판적인 시각을 견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는데, 그 비판적 견해가 沈約이 “入神之作”이라고 자화자찬한 《四聲譜》에 대한 반감인지, 아니면 당시에 유행하고 있는 四聲說 자체를 수용하지 않았던 것인지에 대해서는 해석상의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蕭衍의 개인적인 견해보다는, 沈約을 비롯한 당시 문인학사들의 저술 활동과 蕭衍의 질문에 周捨가 즉석에서 ‘天·子·聖·哲’을 제시할 수 있었던 상황 등으로 미루어 보아, 당시 문인들에게 四聲은 이미 보편화된 개념이었던 것으로 판단해도 무방할 것이다.

문헌상의 대표적인 聲調 관련 기재 사항으로는, 위에서 예로 든 바와 같이 《梁書·沈約列傳》에서 “四聲”이라는 명칭을 확인할 수 있고, 이 외에도 《南齊書·陸厥傳》의 “以平上去入爲四聲。”³⁾이라는 기록에서 ‘平·上·去·入’이라는 四聲의 구체적 인 調類 명칭까지 확인할 수 있다. 中國音韻學의 발전 과정에 있어서, 南朝 시기

2) 《梁書》卷十三, 列傳第七, 〈沈約列傳〉(唐·姚思廉撰, 清·乾隆四年校刊, 光緒同文局本, p.16上).

3) 《南齊書》卷五十二, 列傳第三十三, 〈陸厥列傳〉(梁·蕭子顯撰, 清·乾隆四年校刊, 光緒同文局本, p.8下).

에 이루어진 ‘四聲’이라는 명칭의 성립과 ‘平·上·去·入’으로 대별되는 聲調의 발음 차이에 대한 자각 및 그 분류 방식의 정립은, 反切法의 창안과 더불어 韻書의 형성에 직접적인 요건으로 작용하게 된다.

韻書의 초창기 형태로 추정되는 魏·李登의 《聲類》와 晉·呂靜의 《韻集》이 편찬된 후, 南朝의 齊·周顒(?-485)과 梁·沈約(441-513) 등이 四聲入病說을 근간으로 하는 聲律論을 주창하여 형식미를 중시하는 永明體가 유행하게 되고, 이는 唐代 詩歌文學 흥성의 밑거름이 되었다. 周顒과 沈約은 각각 《四聲切韻》과 《四聲譜》를 편찬하였는데, 書名에서도 ‘四聲’이라는 명칭을 부각시키고자 하였던 저자의 의도가 명확히 드러난다. 《聲類》·《韻集》·《四聲切韻》·《四聲譜》 등의 자료들은 후대 문헌에서 단편적인 기록만을 확인할 수 있을 뿐 이미 실전되어 그 원형을 파악할 수는 없지만, 隋·陸法言의 《切韻》이 편찬되는 과정에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II. 調類와 調值 問題

陸法言의 《切韻》 이후 정통 韻書로서의 지위를 점유하였던 切韻系韻書의 기본적인 체제는, 우선 平·上·去·入 四聲으로 大分類를 설정하고, 각 聲調별로 韻部를 구분한 후, 각 韻部에서 聲母의 차이에 따른 小韻을 분류하여 同音字를 배열하는 방식으로 韻字들을 수록하였다. 다시 말하면, 切韻系韻書의 분류 체계에서 聲調는 大分類; 韻母는 中分類; 聲母는 小分類에 해당한다. 中古漢語에서 平·上·去·入의 四聲으로 구분되는 聲調體系는 《洪武正韻》이나 《音韻闡微》 등의 明清代 官修韻書에서도 동일한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聲調 분류는 近代漢語의 실제 音韻體系, 즉 당시 口語音의 실제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오히려 정통 詩歌文學 등의 讀書音 체계로 간주하는 것이 타당하겠다.

이상과 같은 平·上·去·入의 四聲으로 구분하는 聲調體系는 調類의 분류에 국한된 문제이다. 역대 문헌에 나타나는 각 調類의 구체적인 音價, 즉 調值에 대한 묘사와 해석은 극히 산발적일 뿐만 아니라 서술 양식도 주관적이고 모호한 표현

과 지나치게 형이상학적인 개념으로 기술되고 있어, 각 聲調의 구체적인 調值를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羅常培(1949) 역시 고대 문헌에 기재되어 있는 관련 서술을 소개하면서 “籠統模糊, 迄無的解。[애매모호하고, 정확한 해석이 줄곧 없었다.]”⁴⁾라고 비판하였다. 羅常培(1949) 외에 일찍이 王力(1936)⁵⁾ 등에서도 四聲의 調值에 관한 문헌상의 기록을 소개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해의 편의를 위해, 대표적인 調值 관련 기록을 발췌하여 비교 분석하면 아래와 같다.

唐·處忠《元和韻譜》

平聲哀而安, 上聲勵而舉, 去聲清而遠, 入聲直而促。⁶⁾

明·眞空《玉鑰匙門法歌訣》

平聲平道莫低昂, 上聲高呼猛烈強, 去聲分明哀遠道, 入聲短促急收藏。⁷⁾

明·王驥德《曲律·論平仄》

平聲尚含蓄, 上聲促而未舒, 去聲往而不返, 入聲則逼側而調不得自轉矣。⁸⁾

위에 예시한 處忠과 眞空의 견해는 王力(1936)이나 羅常培(1949) 이외에도 대부분의 논저에서 聲調 관련 사항을 서술할 때 대표적인 문헌 자료로 인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문헌상의 기록은 四聲의 발음 특징에 대한 묘사가 지나치게 형이상학적이고 주관적으로 기술되었기에, 구체적인 의미를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주관적이고 모호한 표현 양식에 대한 해석상의 난점뿐만 아니라, 각 聲調에 대한 묘사의 혼동 현상도 나타나고 있기에, 문헌 해독의 애로 사항이 가중되고 있다. 예를 들면, 處忠은 平聲의 특징을 “哀而安”이라 하고 去聲을 “清而遠”으로 기술하였는데, 眞空은 去聲을 “哀遠道”로 표현하여, 處忠의 平聲과 去聲에 대한 묘사를 융합한 양상으로 나타난다. 또한, 入聲의 특징에 대하여 處忠과 眞空은 각각 “直而

4) 《漢語音韻學導論》(原刊 1949年, 北京大學), 臺北: 里仁書局, 1982年 初版, p.59.

5) 《漢語音韻學》(原名《中國音韻學》, 1936年, 上海: 商務印書館), 《王力文集》第4卷, 濟南: 山東教育出版社, 1986年 第1版, pp.100-101, [關於四聲調值之古說].

6) 王力(1936: 100), 羅常培(1949: 59) 재인용.

7) 同上註.

8) 明·王驥德《曲律》卷第二, 〈論平仄第五〉: 《中國古典戲曲論著集成》(四), 北京: 中國戲劇出版社, 1959年 第1版, p.105.

促”과 “短促急收藏”으로 묘사하여 일맥상통하는 견해를 보인 반면, 王驥德은 上聲을 “促而未舒”로 묘사함으로써, 四聲의 발음 특징에 대한 각각의 인식 차이가 여실히 드러난다.

明代 이전까지의 이러한 산발적인 기록 이후에, 학문의 전반적인 축적과 발전이 이루어졌던 清代에 이르러서는 聲調에 대한 인식과 분석 결과도 한층 더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난다. 清代 학자들이 聲調의 발음 방식과 특징에 대하여 묘사한 대표적인 기록으로는 다음과 같은 예를 들 수 있다.

清·顧炎武《音論》

五方之音有遲疾、輕重之不同，……其重其疾則爲入，爲去，爲上；其輕其遲則爲平。……平音最長，上去次之。入則訕然而止，無餘音矣。⁹⁾

[은 세상의 소리에는 완급과 경중의 차이가 있는데, ……무겁고 촉급하게 발음하면 入聲·去聲·上聲이 되고, 가볍고 완만하게 발음하면 平聲이 된다.……平聲이 가장 길고, 上聲과 去聲은 그 다음으로 길다. 入聲은 소리가 막히듯이 그쳐 여운이 남지 않는다.]

清·江永《音學辨微》

平聲爲陽，仄聲爲陰；平聲音長，仄聲音短；平聲音空，仄聲音實；平聲如擊鐘鼓，仄聲如擊土木石。¹⁰⁾

[平聲은 陽이고, 仄聲은 陰이다. 平聲은 긴 소리이고, 仄聲은 짧은 소리이다. 平聲은 빈 소리이고, 仄聲은 찬 소리이다. 平聲은 종이나 북을 치는 듯한 소리이고, 仄聲은 흙 나무 돌 등을 두드리는 듯한 소리이다.]¹¹⁾

清·戴震《聲類表》

平、上、去三聲近乎氣之陽，物之雄，衣之表。入聲近乎氣之陰，物之雌，衣之裏。¹²⁾

9) 清·顧炎武, 《音學五書·音論》, 〈古人四聲一貫〉(北京:中華書局, 1982年 第1版, pp.39-43).

10) 清·江永, 《音學辨微》, 〈一. 辨平仄〉(清·錢熙祚等輯《指海》第三集, 守山閣刻本, p.1上).

11) “平聲如擊鐘鼓, 仄聲如擊土木石.”이라는 표현은, 平聲을 종소리나 북소리처럼 길게 여운이 남는 소리에 비유하고, 仄聲(上聲·去聲·入聲)은 기타 사물을 두드리는 것처럼 여운이 남지 않는 소리로 구분해서 묘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12) 清·戴震, 《聲類表》, 卷首, 〈答段若膺論韻〉(民國12年(1923) 渭南嚴氏刊《音韻學叢

[平聲·上聲·去聲은 陽氣에 가깝고, 사물의 수컷 같으며, 의복의 겉과 유사하다. 入聲은 陰氣 같고, 암컷 같으며, 안과 유사하다.]

清·張成孫《說文諧聲譜》

平聲長言, 上聲短言, 去聲重言, 入聲急言。¹³⁾

[平聲은 길게, 上聲은 짧게 발음하고, 去聲은 중후하게, 入聲은 촉급하게 발음한다.]

清·王鳴盛《十七史商榷》

以舌頭言之爲平, 以舌腹言之卽爲上, 急氣言之卽爲去, 閉氣言之卽爲入。¹⁴⁾

[혀끝으로 발음하면 平聲이 되고, 혀바닥으로 발음하면 上聲이 된다. 급하게 숨을 내쉬어 발음하면 去聲이 되고, 내쉬는 숨을 닫아 발음하면 入聲이 된다.]

이처럼 清代 학자들은 다양한 표현 양식으로 각 聲調의 발음 방법과 특징을 묘사하였다. 이 중에는 “遲疾, 長短, 急氣, 閉氣” 등과 같이 발음 방법의 분석을 시도한 흔적도 보이지만, 여전히 모호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輕重, 陰陽, 雌雄, 表裏, 空實” 등과 같은 형이상학적인 개념으로 聲調를 분류한 것은 판단 기준 자체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관적인 인식의 한계로 인하여 구체적인 해석에 난점이 적지 않다. 한편, 音節 구조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자체를 혼동한 경우도 나타나는데, 위에 예로 든 王鳴盛의 서술 부분에서는 “舌頭”와 “舌腹”의 발음부위 차이로 平聲과 上聲을 구분하기도 하였다.¹⁵⁾ 이에 대하여 羅常培(1949: 59)는 “牽混聲母, 昧于調值, 益謬誤不足道矣! [聲母와 혼동하여 건강부회함으로써, 調值 분석을 더욱 애매하게 하였으니, 오류가 더 심해졌음은 말할 필요도 없

書》本).

13) 羅常培(1949: 59) 재인용.

14) 清·王鳴盛, 《十七史商榷》, 卷十, 漢書四, 〈內言〉(上海: 上海書店出版社, 2005年第1版, p.63).

15) 王鳴盛(1722-1797)은 清代의 史學家로서 經學과 考證學에도 조예가 깊었다. 《十七史商榷》《耕養齋詩文集》《西泚居士集》 등의 저서를 남겼는데, 이 중에서 대표작으로 꼽히는 《十七史商榷》은 《史記》와 《漢書》 이후 《五代史》까지의 사료를 대상으로 史學 분야의 서술이 주요 내용이지만, 〈徐廣音義〉 〈內言〉 〈三蒼以下諸家〉 〈古音〉 〈語多通用〉 〈文字滄譌〉 등의 개별 서술 부분에서는 언어학적 식견에 근거하여 독창적인 견해를 피력하기도 하였다.

다.]”라고 비평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역대 문헌상의 聲調에 대한 서술에서 調類는 공통적으로 南朝 이후의 平·上·去·入 四聲을 대상으로 하는 데 인식의 차이를 나타 내지는 않았다. 하지만 각 調類의 발음 방법이나 調值에 대해서는 주관적이고 형이상학적인 표현 방식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音價를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었다.

20세기에 이르러 서양의 언어학이론을 접하게 된 중국 언어학계는 연구 자료와 방법론적인 면에서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된다. 劉復의 《四聲實驗錄》(1924)에서 실험음성학적 이론과 방법론에 근거하여 四聲(聲調)의 音價에 대한 인식을 구체화하기 시작했고, 이후 趙元任(1892-1982)에 의하여 현재 통용되고 있는 調值의 표기 방식인 五度制調值標記法¹⁶⁾이 창안되기에 이른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특히 실험음성학적인 분석법에 근거하여 聲母·韻母·聲調 등 音節의 구성 요소에 대한 구체적인 音價 분석이 가능해졌고, 이 중에서도 聲調의 본질은 音高의 高低昇降 변화로 실현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세기 이전의 문헌에 기재된 聲調에 관한 묘사는 형이상학적이고 모호한 표현이 주를 이루었는데, 이에 비하여 20세기 이후 현대 언어학의 과학적인 접근 방식은 聲調의 調類와 調值를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규명할 수 있게 되었다.

Ⅲ. 入聲의 歸屬 問題

南朝 시기, 즉 6세기경에 정립되었던 聲調에 대한 인식은, 中古漢語와 近代漢語의 변화 과정을 거치는 십 수 세기 동안 平·上·去·入 四聲으로 구분한 調類의 분류 방식에 대해서는 이견이 제기되지 않았다. 비록 近代漢語 이후의 北方音

16) 五度制調值標記法은 통상 五度標調法으로 약칭한다. 五度標調法은 1930년에 趙元任이 France Paris 國際語音學會의 IPA委員會에서 간행한 《語音學大師 (Le Maître Phonétique)》에 IPA로 표기된 <ə sistim əv "toun-letəz">를 발표하면서 처음으로 제시되었다. 해당 논문은 IPA로 작성되어 일반 독자들에게는 가독성의 한계가 있었으므로, 후에 《方言》(1980年 第2期, pp.81-83)에서 <一套標調的字母 (A SYSTEM OF "TONE - LETTERS")>라는 제목으로 英文 번역본을 게재하였다.

系에서는 口語音의 변천 과정에 따라 入聲의 消失을 반영하여 平聲(陰/陽)·上聲·去聲으로 調類가 재편되었지만, 聲調 범주에서의 入聲 자체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제기하지 않았다.

入聲을 聲調의 한 부류로 인식하는 데에는 이견이 없었기에, 周德清은 《中原音韻》에서 “入聲作平聲·入聲作上聲·入聲作去聲” 등으로 표기하여 中古漢語 시기 切韻系韻書에서 入聲으로 분류되었던 韻字들을 각각 陽平·上聲·去聲에 귀속시켜 수록하였던 것이다. 이처럼 周德清이 “入聲作某聲”이라는 항목으로 入聲의 調類 변화를 귀납한 형식은, 《中原音韻》의 일부 韻部에 수록되어 있는 “去聲作平聲”¹⁷⁾과 동일한 범주의 분류 형식으로 배열되어 있으므로, 入聲을 去聲 혹은 平聲·上聲과 마찬가지로 調類의 일종으로 간주했음을 반증하고 있다. 또한, 明代 이후 南曲의 用韻 상황을 반영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明·王文璧의 《中州音韻》에서도 형식적인 체재는 《中原音韻》을 계승하여 “入作某聲”이라는 항목으로 古 入聲字를 平·上·去 3聲에 분산 수록하였는데, 여기에서도 “上作平聲”¹⁸⁾이라는 형식이 병존하고 있으므로, 入聲을 調類의 일종으로 간주한 방증 자료가 된다. 이러한 배경으로 인하여, 학계에서는 中原系韻書의 “入聲作某聲”이라는 調類 분류 방식에 대하여 「入派三聲」 혹은 「入聲消失」이라는 명칭으로 入聲을 調類의 일종으로 간주하는 인식의 연속성이 유지되고 있다.

한편, 聲調를 분류하는 방식으로서의 調類와는 달리, 聲調의 音價, 즉 調値는 音高의 高低昇降 변화로 규정하는 것이 현행 학계의 일반적인 관점이다. 이러한 연유로 音高보다는 音長의 短促을 주요 특성으로 하는 入聲의 귀속 문제에 대해서는 논란이 야기될 수밖에 없었다. 20세기 초부터 학계에서는 入聲을 聲調의 한 부류로 간주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韻尾의 특성에 따른 韻母 문제로 간주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었다. 이는 中古漢語 이후 십 수 세기에 걸친 調類 설정의 확고한 전통을 전면적으로 재구성해야 하는 혁신적인 의미를 지닌다. 일찍이 1929년에 胡適(1891-1962)은 〈入聲考〉를 발표하여 [-p]·[-t]·[-k] 등의 塞音韻尾가 바로 入聲의 특징이라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17) 《中原音韻》齊微韻·去聲作平聲：“鼻”

18) 《中州音韻》車遮韻·上作平聲：“者，叶遮，此也。”“也，叶耶，語已辭。”

入聲是韻母收聲於-k, -p, -t三種聲尾的聲韻。[入聲은 韻母가 -k, -p, -t 세 종류의 韻尾로 끝나는 音節이다.]¹⁹⁾

入聲의 特別性質在於有-k, -p, -t三種聲尾。[入聲의 특성은 -k, -p, -t 세 종류의 韻尾에 있다.]²⁰⁾

胡適(1929)의 견해에 대해서는 전통적인 調類로서의 入聲에 대한 인식과 명확한 차이를 표명한 것으로 평가하기보다는, 入聲의 특징을 平聲·上聲·去聲과 대립되는 調類로서가 아니라, 音節 구조상의 韻尾 문제라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 선도적 역할로 보아야 할 것이다. 胡適이 1929년 1월 10일에 〈入聲考〉를 발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魏建功(1901-1980)은 胡適(1929)의 견해를 분석하고 보충하는 내용을 토대로 〈古陰陽入三聲考〉를 발표하였다. 魏建功(1929)의 聲調에 대한 인식과 入聲에 대한 견해를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古三聲是字音組織上的問題。[古三聲은 字音의 構成에 대한 문제이다.]

今四聲是字音聲調上的問題。[今四聲은 字音의 聲調에 대한 문제이다.]

古今入聲的名稱雖同, 其實質是不同的。[古三聲과 今四聲에서 入聲의 명칭은 비록 동일하지만, 그 실체는 서로 다른 것이다.]²¹⁾

魏建功(1929)의 견해에 따르면, ‘古三聲’은 上古漢語의 陰·陽·入 三聲을 지칭하는 것이고, ‘今四聲’은 中古漢語 이후의 平·上·去·入 四聲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한다. 魏建功(1929)에서는 胡適(1929)뿐만 아니라 段玉裁·孔廣森·王念孫·江有誥·黃侃 등 清代 古音學者들의 聲調 관련 견해에서 ‘古三聲’과 ‘今四聲’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하여 혼동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에 대한 오류 수정과 아울러 자신의 관점을 제기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하지만, 현행 학계의 공인된 관점에서 보면, 魏建功의 ‘古三聲’과 ‘今四聲’은 바로 韻母 영역의 ‘陰聲韻·陽聲韻·入

19) 胡適, 〈入聲考〉(原載《新月》第1卷 第11期, 1929年 1月 10日), 《胡適學術文集-語言文字研究》, 姜義華主編, 北京: 中華書局, 1993年 第1版, p.261.

20) 同上註, p.273.

21) 魏建功, 〈古陰陽入三聲考〉(原載《國學季刊》1929年 第2卷 第4期), 《魏建功文集》第3卷, 南京: 江蘇教育出版社, 2001年 第1版, p.191.

聲韻²²⁾을 ‘古三聲’으로 지칭하고, 전통적인 聲調體系로서의 ‘平·上·去·入’ 四聲을 ‘今四聲’으로 정의한 분류에 지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오히려 魏建功 자신이 韻母 문제와 聲調 문제를 명확히 구분하지 못하고 古今의 시기 문제로 뒤섞어 모호함만 가중시킨 오류로 평가할 수 있겠다.

사실 胡適(1929)과 魏建功(1929)에서 韻母와 聲調 문제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지 못하고 모호한 분석에 그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入聲’이라는 명칭이 내포하고 있는 양면성에 기인한 것으로 유추된다. 전통 聲調體系에서 平聲·上聲·去聲과 대립되는 入聲, 그리고 韻母의 韻尾 차이에 따른 분류로서의 陰聲韻·陽聲韻과 대립되는 入聲韻, 이 두 분류 체계에서 入聲은 공통으로 속해있는 요소일 뿐만 아니라, 통상 ‘平·上·去·入’과 ‘陰·陽·入’으로 약칭하는 관례로 인해 명칭상의 혼동이 불가피하였던 것이다. 이는 胡適(1929)과 魏建功(1929)만의 착오가 아닌, 현행 음운학계에서도 여전히 남아있는 미결과제이기도 하다. 이처럼 현행 이론적 잣대로 이전 시기의 연구 성과를 평가할 때, 종전에 정립된 개념과 견해들이 정밀하지 못하다거나 오류로 분류되는 사례는, 시기상의 한계로 인해 비일비재한 현상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胡適(1929)이나 魏建功(1929)처럼 새로운 견해 제시가 있었기에 학계의 전반적인 관심과 문제 해결의 필요성이 대두될 수 있었음을 감안하면, 후속 연구에 미친 영향력과 그 선구적 역할의 성취도를 높이 사지 않을 수 없다.

調類로서의 入聲과 韻母 영역으로서의 入聲韻에 대하여 명확한 경계 구분을 제시함으로써 학계의 폭넓은 관심과 주목을 선도한 연구 성과로는 1943년에 발표된 岑麒祥의 〈入聲非聲說〉을 꼽을 수 있다. 岑麒祥(1943)에서는 그간 四聲으로 분류되는 調類의 일종으로 인식되었던 入聲이, 音高의 高低昇降에 의한 구분이 아니라 韻尾의 특성으로 실현되는 音長의 차이라는 점에 근거하여, 入聲을 聲調의 일종으로 간주하지 않았다.

傳統音韻學上所說的漢語四聲中的入聲并不是語音學上所說的純粹的高低昇降問題, 其中還包括着語音的長短(舒聲-長, 促聲-短)和韻尾的不同。…… 入

22) 韻尾의 차이에 따라 韻母를 분류하는 陰·陽·入 三分法은 戴震의 《聲韻考》에서 제기되었다.

聲本身沒有獨立的音的高低昇降。……從現代語音學的角度來看，入聲不能算是一種單純的聲調。²³⁾

[전통 音韻學에서 지칭하는 四聲 중의 入聲은 결코 語音學에서 말하는 순수한 高低昇降 문제가 아니라, 발음상의 長短(舒聲-長, 促聲-短)과 韻尾의 차이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 入聲 자체의 발음에는 독자적인 高低昇降이 존재하지 않는다. …… 現代語音學의 기준으로 판단하면, 入聲을 단순한 聲調의 일종으로 간주할 수는 없다.]

岑麒祥(1943)은 四聲 중에서 平·上·去 三聲은 音高의 高低昇降 차이로 구분되므로 순수한 聲調 문제에 속하지만, 入聲의 특성은 音長의 短促과 韻尾의 차이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므로, 平·上·去 三聲과 入聲을 동일 범주로 취급할 수 없다는 견해를 명확히 제시한 것이다. 이러한 “入聲非聲 [入聲은 聲調가 아니다.]”이라는 견해는 후에 黃伯榮(1960)의 〈陽江話“入聲非聲”實驗報告〉를 통해 “入聲不能該算作獨立的調類。[入聲은 독립적인 調類로 간주할 수 없다.]”²⁴⁾라는 결론으로 검증과 지지를 받게 된다. 岑麒祥(1943)과 黃伯榮(1960) 등에 의하여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入聲非聲” 학설의 핵심 사항은, 入聲을 平聲·上聲·去聲과 대응되는 調類로서의 聲調 범주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陰聲韻·陽聲韻과 대응하는 入聲韻으로 분류하여 韻尾의 차이로 구분되는 韻母 범주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후속 연구에서 지지파와 반대파 두 부류로 양분되어 학계의 활발한 논의를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다.

入聲을 調類의 일종으로 인정하는 전통적인 관점과는 확연히 다른 시각으로, 入聲을 韻母 범주에서 분석하려는 지지파로는 宗福邦(1984)의 견해를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다.

塞音韻尾消失意味着聲韻結構性質的改變：閉音節變成開音節，入聲韻變成陰聲韻，換句話說就是“入派陰聲”。可見，入聲消失指的就是入聲失去了塞音韻尾，改變了韻母結構的性質。²⁵⁾

23) 岑麒祥, 〈入聲非聲說〉, 《圖書月刊》第2卷 第7期, 1943年, pp.8-11.

24) 黃伯榮, 〈陽江話“入聲非聲”實驗報告〉, 《甘肅師範大學學報》人文科學, 1960年 第1期, pp.123-128.

25) 宗福邦, 〈論入聲的性質〉, 《音韻學研究》第1輯, 北京：中華書局, 1984年 第1版,

[塞音韻尾의 消失은 音節構造의 성질에 변화가 발생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閉音節이 開音節로 변화한 것, 入聲韻이 陰聲韻으로 변화한 것으로, 바꾸어 말하면 바로 “入派陰聲”이다. 이로써 알 수 있듯이, 入聲의 消失이라는 것은 入聲의 塞音韻尾가 탈락함으로써 韻母 구조의 성질에 변화가 발생하였음을 지칭하는 것이다.]

宗福邦(1984)은 入聲에 대한 기존 학설과 方言 자료의 분석을 근거로, 현행 학계에서 통용되고 있는 「入派三聲」이라는 용어 대신 「入派陰聲」이라는 명칭으로 대체할 것을 제안하였다. 「入派陰聲」의 개념에 따르면, 近代漢語 이후 中原系韻書에서 平聲(陰/陽)·上聲·去聲으로 調類가 재편된 것은 入聲이라는 聲調의 調類에 변화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入聲韻의 [-p]·[-t]·[-k] 塞音韻尾가 消失됨으로써 陰聲韻으로 변화한 韻母 범주의 변화라는 의미이다. 즉, 「入派三聲」이라는 용어 자체가 入聲을 調類로 간주하는 인식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入聲의 실체를 韻尾 차이의 韻母 문제로 인정하는 입장에서는 「入派三聲」이 아닌 「入派陰聲」으로 표현해야 入聲의 韻尾 변화에 따른 陰聲韻化 현상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

黃伯榮(1960)과 宗福邦(1984) 이외에도 楊信川(1997), 朱星一(2002), 夏中易(2007) 등이 岑麒祥(1943)의 “入聲非聲說”에 찬동한 지지파의 견해로 분류된다. 반면, 陸雯雯·梁鳳居(2006)와 宋勇(2011) 등에서는 현행 학계에서 音高의 高低昇降만으로 聲調의 調值를 규정하는 관점과는 달리, 音素와 音量(音長)도 調類 구분의 기준이 된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여 岑麒祥(1943) 이후 일련의 “入聲非聲說”에 반대하는 입장을 명확히 표명하였다. 특히 宋勇(2011)에서는 역대 切韻系韻書에서의 平·上·去·入 四聲 분류 체제와 周德清이 제기한 「入派三聲」의 개념 및 粵語·客家話·閩語 등 現代 方言에서의 聲調體系 등을 근거로 入聲을 平聲·上聲·去聲과 대응하는 調類로 규정하였다. 이러한 인식을 토대로 “古今四聲的分類標準不同 [고대와 현재의 四聲에 대한 분류 기준이 서로 달랐다.]”²⁶⁾이라는 견해를 제시하여, 현재는 音高의 高低昇降 차이에 따라 聲調를 분류하지만, 中古漢

p.468.

26) 宋勇, “入聲非聲”獻疑, 《西南科技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2011年 第28卷 第3期, p.69.

語와 近代漢語 시기에는 音高 이외에 音長의 短促에 근거하여 入聲을 調類의 일종으로 간주하는 데 하등의 모순이 없음을 강조하였다.

이상 岑麒祥(1943)의 “入聲非聲說”에 대한 지지와 반박의 견해 차이는, 入聲의 귀속 문제에 국한된 논의가 아니라, 聲調의 본질 자체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겠다. 趙元任(1930)에 의하여 제기된 五度標調法 이후, 音高의 高低昇降 차이가 聲調를 분류하는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는 현행 학계의 일반적인 견해는, 6세기 南朝 시기 이후 십 수 세기에 걸쳐 확고한 체계로 유지된 平·上·去·入 四聲의 전통적 분류 방식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양상으로 귀결된다. 하지만, 趙元任(1930)에서도 “Straight tones”와 “Short tones”로 구분하여 “11·22·33·44·55”와 “1·2·3·4·5”²⁷⁾로 각각 音長의 차이를 달리 표기했던 의도를 간과할 수 있는 문제인지, 그리고 周顛·沈約 등에 의하여 제창된 四聲의 개념 자체와 入聲에 대한 인식을 現代言語學의 분석 방식에 근거하여 “入聲非聲說”로 송두리째 부정할 수 있는 문제인지는 재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入聲韻이라는 韻母의 특성으로 인해 塞音韻尾의 短促한 발음 특징이 여타 音節과는 명확한 音色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굳이 聲調의 한 부류로 入聲을 설정할 필요 없이 韻尾의 차이만으로도 韻文의 用韻 상황이나 분류가 가능한 문제 이기는 하다. 이러한 맥락으로 “入聲非聲”에 동조하는 후속 연구가 근래 학계에서 영향력을 형성하고 있다. 하지만 본고에서는 전통적인 聲調 분류 체계로서의 四聲과 現代言語學의 연구 성과에 근거한 聲調의 분류 방식 사이에는 音高 이외에 音長을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상호 본질적인 인식 차이가 존재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고, 入聲을 聲調 혹은 韻母 범주로 귀속하여 분류하는 문제는 한 단계 더 진일보한 분석이 필요함을 절감하여, 향후 연구 과제로 남겨둔다.

IV. 入聲韻尾의 弱化 및 消失 過程

入聲 혹은 入聲韻으로 분류되는 音節은, 韻母가 塞音韻尾로 구성되어 발음이

27) 趙元任, 〈一套標調的字母(A SYSTEM OF “TONE - LETTERS”)〉, 《方言》, 1980年第2期, p.81.

길게 여운을 끌지 못하고 促急하게 마무리되는 특성을 지닌다. 일반적으로 入聲韻尾는 [-p·-t·-k]의 세 종류로 구분된다.²⁸⁾ 隋·陸法言의 《切韻》 이후 中古漢語 시기의 切韻系韻書에서는 성조를 平·上·去·入의 四聲으로 나누고, 入聲을 [-p·-t·-k] 3종 韻尾로 구분하여 각각 [-m·-n·-ŋ] 韻尾에 해당하는 陽聲韻과 대응시키고 있다. 예를 들어, 《廣韻》의 체재는 平·上·去·入 四聲 총 206韻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34개의 韻으로 분류된 入聲은 介音(韻頭) 및 主要元音(韻腹)의 동일성과 [-p·-t·-k] 韻尾의 차이에 따라 각각 平聲(57韻)·上聲(55韻)·去聲(60韻) 중의 陽聲韻 [-m·-n·-ŋ] 鼻音韻尾와 대응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통상 四聲相配 혹은 四聲相承으로 지칭되는 각 韻의 대응관계는 다음과 같다.

韻類	平聲	上聲	去聲	入聲	韻部 再構音 ²⁹⁾	
					陰聲韻 / 陽聲韻	入聲韻
1	上 1.東	1.董	1.送	1.屋	uŋ ; iuŋ	uk ; iuk
2	上 2.冬	30)	2.宋	2.沃	uoŋ	uok
3	上 3.鍾	2.腫	3.用	3.燭	iwoŋ	iwok
4	上 4.江	3.講	4.絳	4.覺	ɔŋ	ɔk
5	上 5.支	4.紙	5.寘		ie ; iwe	
6	上 6.脂	5.旨	6.至		i ; wi	
7	上 7.之	6.止	7.志		iə	
8	上 8.微	7.尾	8.未		iəi ; iwəi	
9	上 9.魚	8.語	9.御		io	
10	上10.虞	9.麌	10.遇		iü	
11	上11.模	10.姥	11.暮		iü	

28) 羅常培(1933)에서는 入聲韻尾를 [-p·-t·-k] 계열과 [-b·-d·-g] 계열로 양분하였다. 양분된 入聲韻尾는 시기별로 변화 양상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는데, 上古漢語의 [*-b·*-d·*-g] 계열은 中古漢語에서 韻尾가 탈락하여 陰聲韻으로 변화하였고, [*-p·*-t·*-k] 계열은 中古漢語에서 다시 [-p·-t·-k] 계열과 [-b·-d·-g] 계열로 분화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또한, 中古漢語의 [-p·-t·-k] 계열은 近代漢語 이후 現代漢語에 이르기까지 廣東·客家·閩方言 등과 같이 入聲韻尾를 보존하고 있거나, 吳方言처럼 비록 弱化된 형태이지만 喉塞音[ʔ] 형태의 入聲韻尾를 보존하고 있는 경우로 변화하였고, [-b·-d·-g] 계열은 官話方言처럼 入聲韻尾가 탈락하여 陰聲韻으로 변화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12	上12.齊 11.薺 12.霽	iei ; iwei	
13	13.祭 ³¹⁾	iei ; iwei	
14	14.泰	ai ; uai	
15	上13.佳 12.蟹 15.卦	ai ; wai	
16	上14.皆 13.駭 16.怪	ei ; wei	
17	17.夬	æi ; wæi	
18	上15.灰 14.賄 18.隊	ui	
19	上16.哈 15.海 19.代	ɯi	
20	20.廢	iei ; iwei	
21	上17.眞 16.軫 21.震 5.質	ien̄ ; iwēn̄	iet̄ ; iwēt̄
22	上18.諄 17.準 22.稕 6.術	iuēn̄	iuēt̄
23	上19.臻 ³²⁾ ³³⁾ 7.櫛	ien̄	iet̄
24	上20.文 18.吻 23.問 8.物	iuən̄	iuət̄
25	上21.欣 19.隱 24.焮 9.迄	ien̄	iet̄
26	上22.元 20.阮 25.願 10.月	ien̄ ; iwēn̄	iet̄ ; iwēt̄
27	上23.魂 21.混 26.恩 11.沒	uən̄	uət̄
28	上24.痕 22.很 27.恨 ³⁴⁾	ən̄	
29	上25.寒 23.旱 28.翰 12.曷	an̄	at̄
30	上26.桓 24.緩 29.換 13.末	uan̄	uat̄
31	上27.刪 25.漣 30.諫 14.黠	an̄ ; wan̄	at̄ ; wat̄
32	上28.山 26.産 31.禡 15.鎋	æn̄ ; wæn̄	æt̄ ; wæt̄
33	下 1.先 27.銑 32.霰 16.屑	ien̄ ; iwēn̄	iet̄ ; iwēt̄
34	下 2.仙 28.獮 33.線 17.薛	ien̄ ; iwēn̄	iet̄ ; iwēt̄
35	下 3.蕭 29.篠 34.嘯	ieu	
36	下 4.宵 30.小 35.笑	ieu	
37	下 5.肴 31.巧 36.效	au	
38	下 6.豪 32.皓 37.號	au	
39	下 7.歌 33.哿 38.箇	a	
40	下 8.戈 34.果 39.過	ua ; ia ; iua	
41	下 9.麻 35.馬 40.禡	a ; ia ; wa	
42	下10.陽 36.養 41.漾 18.藥	iaŋ ; iwaŋ	iak̄ ; iwak̄

43	下11.唐	37.蕩	42.宕	19.鐸	ɑŋ ; uɑŋ	ak ; uak
44	下12.庚	38.梗	43.映	20.陌	ɛŋ ; ʔɛŋ ; wɛŋ ; ʔwɛŋ	ɛk ; ʔɛk ; wɛk ; -
45	下13.耕	39.耿	44.諍	21.麥	æŋ ; wæŋ	æk ; wæk
46	下14.清	40.靜	45.勁	22.昔	ʔɛŋ ; ʔwɛŋ	ʔɛk ; ʔwɛk
47	下15.青	41.迥	46.徑	23.錫	ʔɛŋ ; ʔwɛŋ	ʔɛk ; ʔwɛk
48	下16.蒸	42.拯	47.證	24.職	ʔəŋ ; -	ʔək ; ʔwək
49	下17.登	43.等	48.嶝	25.德	əŋ ; uəŋ	ək ; uək
50	下18.尤	44.有	49.宥		ʔəu	
51	下19.侯	45.厚	50.候		əu	
52	下20.幽	46.黝	51.幼		iəu	
53	下21.侵	47.寢	52.沁	26.緝	ʔɛm	ʔɛp
54	下22.覃	48.感	53.勘	27.合	ɔm	ɔp
55	下23.談	49.敢	54.闕	28.盍	am	ap
56	下24.鹽	50.琰	55.豔	29.葉	ʔɛm	ʔɛp
57	下25.添	51.忝	56.楛	30.帖	iem	iep
58	下26.咸	53.謙	58.陷	31.洽	ɛm	ɛp
59	下27.銜	54.檻	59.鑑	32.狎	am	ap
60	下28.嚴	52.儼	57.釅	33.業	ʔɛm	ʔɛp
61	下29.凡	55.梵	60.范	34.乏	ʔwɛm	ʔwɛp

[표-1] 《廣韻》韻目四聲相承關係表

- 29) 再構音은 王力 《漢語史稿》(《王力文集》第9卷, 濟南: 山東教育出版社, 1988年 第1版, pp.69-72)의 61韻類 141韻母에 근거하였음.
- 30) 冬韻의 上聲으로 분류되는 韻字는 「鍾」「鳩」 두 자인데, 韻字 수가 적어 腫韻에 합병하여 수록되었다.
- 31) 去聲의 13.齊, 14.泰, 17.夬, 20.廢 4韻은 平聲·上聲·入聲과 대응하지 않고 去聲만 단독으로 분류되어 있다.
- 32) 臻韻의 上聲으로 분류되는 韻字는 「鯨」「亂」 두 자인데, 韻字 수가 적어 隱韻에 합병하여 수록하였다.
- 33) 臻韻의 去聲으로 분류되는 韻字는 「亂」자인데, 韻字 수의 부족으로 인해 上聲의 처리 방식과 같이 欣韻의 去聲인 焮韻에 수록되어야 하지만, 《廣韻》에서는 별도로 수록하지 않고 上聲의 隱韻에 수록된 「亂」자에 “又初斬切”이라는 又音 표기 형식으로 去聲의 발음이 기재되어 있다.

위의 [표-1]에 나열된 바와 같이, 切韻系韻書를 대표하는 《廣韻》의 音節 배치 상황에서 入聲은 元音 部分의 동일성과 塞音韻尾 [-p·-t·-k]의 차이에 따라 각각 陽聲韻의 鼻音韻尾 [-m·-n·-ŋ]에 대응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音節 분류와 四聲相配의 배열 방식은 中古漢語 이후 明清代에 이르기까지 《洪武正韻》이나 《音韻闡微》 등의 官修韻書에서도 韻書 편찬의 기본적인 구도로 유지되고 있었다.

讀書音 계열의 切韻系韻書와는 달리 近代漢語 北方音系의 口語音 체계를 반영하는 周德清의 《中原音韻》에서는 中古漢語의 入聲字들을 “入聲作某聲”의 체제에 따라 陽平·上聲·去聲에 분산하여 귀속시켰다. 총 19韻部로 구성된 《中原音韻》의 체제에서 “入聲作某聲”의 형식으로 古 入聲字를 수록한 聲調 처리 방식은 다음과 같다.

韻部	韻部 再構音 ³⁵⁾			入聲分配狀況			
				陽平	上聲	去聲	
1 東鍾	uŋ	iuŋ		×	×	×	
2 江陽	aŋ	iaŋ	uaŋ	×	×	×	
3 支思	ī			×	○	×	
4 齊微	ei	i	uei	○	○	○	
5 魚模	u	iu		○	○	○	
6 皆來	ai	jai	uai	○	○	○	
7 眞文	ən	iən	uən	iuən	×	×	×
8 寒山	an	jan	uan		×	×	×
9 桓歡	on				×	×	×
10 先天		iən		iuən	×	×	×
11 蕭豪	au	iau : ieu			○	○	○
12 歌戈	o	io	uo		○	○	○
13 家麻	a	ja	ua		○	○	○

34) 痕韻의 入聲으로 분류되는 「𪗇」小韻(「𪗇」 「𪗇」 「𪗇」 「𪗇」)은 沒韻에 합병하여 수록하였다.

14	車遮		iɛ		iuɛ	○	○	○
15	庚青	əŋ	iəŋ	uəŋ	iuəŋ	×	×	×
16	尤侯	əu	iəu			○	○	○
17	侵尋	əm	iəm			×	×	×
18	監咸	am	jam			×	×	×
19	廉纖		iəm			×	×	×

[표-2] 《中原音韻》入聲分配狀況表

위의 [표-2]에 나타난 바와 같이, 《中原音韻》의 聲調 배열 형식은 支思韻에서 上聲에만 古 入聲字를 배치한 예를 제외하면 나머지 陰聲韻 韻部에서는 일률적으로 平聲(陽平)·上聲·去聲에 각각 “入聲作某聲”의 형식으로 古 入聲字를 귀속시키고 있다. 이러한 「入派三聲」의 처리 방식이 入聲의 消失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曲韻에서의 押韻 편의에 의한 구성일 따름이고 실제 언어생활에서는 入聲이 다른 聲調와 구별요소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학계의 일치된 견해가 도출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中原音韻》의 聲調體系에서 入聲이 배제되고 平聲(平聲陰/平聲陽)·上聲·去聲으로 구분되는 표면적인 현상은 차치하더라도, 切韻系韻書처럼 入聲을 陽聲韻에 대응시키는 구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표-2]와 같이 陰聲韻에 귀속시키고 있는 점은, 曲韻의 用韻 상황을 반영한 결과일 뿐만 아니라 실제 언어생활에서도 入聲의 弱化 혹은 消失 현상을 반영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겠다.

近代漢語 音韻體系 연구의 자료 운용면에서 《中原音韻》의 영향력은 가히 절대적이라 할 만하다. 「入派三聲」으로 대표되는 入聲 消失 현상은 中古漢語와 近代漢語 구분의 상징적인 音韻變化 현상으로 인정된다. 하지만 근래의 연구 성과에서는 비록 산발적이기는 하지만 《中原音韻》에 반영된 「入派三聲」 이전에도 入聲韻尾의 消失 과정을 추정해 볼 수 있는 다양한 자료들이 제시되고 있다. 특히, 尹芳烈(1974)·安寄燮(1986)·夏瑞華(1989)·曹熙武(2001)·裴宰奭(2002) 등의 연구 결과를 통해, 宋代 이전에도 入聲 消失의 音韻變化를 반영하는 다양한 자료

35) 再構音은 楊耐思 《中原音韻音系》(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81年 第1版, pp.44, 76-186)에 근거하였음.

들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일부 논저에서는 中古漢語 시기인 唐代에도 入聲韻尾의 弱化 혹은 消失을 반영하는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하였음을 반영하는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먼저, 施向東(1983)에서는 唐·玄奘(600-664) 《大唐西域記》의 梵漢對音資料에 대한 분석 결과를 근거로, 7세기 무렵 洛陽지역의 中原方言에서 이미 入聲韻尾가 弱化되어 서로 混用되었던 사례를 제시하였다. 특히, [-k]韻尾 “特·郁·目” 등의 例字와 [-t]韻尾 “筆·屈” 등의 梵漢對音 상황을 예로 들어 [-t]·[-k]韻尾의 混用 현상이 [-p]韻尾보다 더 보편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고증하였고, 일부 [-k]韻尾 “綽·擇·薄·洛·酌·鑠” 등과 [-t]韻尾 “達·吉·壹·昵·經” 등의 例字는 開音節로 對譯되고 있는 사례에 근거하여 入聲韻의 弱化 현상, 즉 陰聲韻과의 混用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을 고증하였다.³⁶⁾ 施向東(1983)의 연구 결과에 따라, 中古漢語 시기인 7세기 무렵 洛陽지역의 中原方言에서는 이미 入聲韻의 弱化 현상이 진행되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8-9세기 무렵 唐末에 이르러 [-t]·[-k]韻尾의 混用 현상을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도 周祖謨(1988)에 의하여 검증되었다. 周祖謨(1988)의 고찰 결과에 따르면, 敦煌變文 중의 《維摩詰經講經文》에서는 “質(-t)·葉(-p)·麥(-k)·職(-k)” 등의 일부 入聲韻에서 通韻 현상이 발견되고, 韓愈(768-824)의 《進學解》에서 “拙(-t)·傑(-t)·適(-k)”과 “粟(-k)·織(-k)·食(-k)·竊(-t)·斥(-k)”이 각각 通韻하는 사례에 근거하여 塞音韻尾의 弱化에 따른 [-t]·[-k]韻尾의 混用 현상과 아울러 喉塞音韻尾 [-ʔ]로 변화하였을 가능성을 제기하였다.³⁷⁾ 이러한 周祖謨(1988)의 추론은 金恩柱(2002)에서도 동일한 결론으로 검증되었다. 金恩柱(2002)에서는《唐代墓誌彙編》³⁸⁾의 銘文 분석에 근거하여, 晚唐(9-10세기) 시기의 北方方音에서 臻攝과 梗攝·曾攝의 入聲韻, 즉 [-t]·[-k]韻尾의 混用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고증하였고, 아울러 [-t]·[-k]韻尾가 消失되기 시작하면서 喉塞音韻尾 [-ʔ]로 변화하였을 것으로 추정하였다.³⁹⁾

36) 施向東, 〈玄奘譯著中的梵漢對音和唐初中原方音〉, 《語言研究》1983年 第1期, p.33.

37) 周祖謨(1988), 〈唐五代的北方語音〉, 《語言學論叢》, 北京:商務印書館, 1988年 第1版, p.14.

38) 周紹良, 上海:上海古籍出版社, 1992年 第1版.

39) 金恩柱(2002), 〈唐代 入聲 韻部の 分化〉, 《중국인문과학》 제25집, p.51-52, 54.

이상의 연구 결과 분석에 따르면, 7세기 이후 10세기에 이르는 唐代에도 入聲消失을 반영하는 다양한 사례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외에도 入聲韻尾의 混用 사례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는 자료로는 아래와 같은 詩를 예로 들 수 있다.

唐·胡曾《戲妻族語不正》

呼十却爲石，喚針將作眞。忽然雲雨至，總道是天因。

[十자를 石으로 읽고, 針지는 眞으로 발음하네. 갑자기 비구름이 몰려들면(“天陰”이라 해야 하거늘) “天因”이라고 하네.]⁴⁰⁾

상기 詩의 제목인 “戲妻族語不正”으로 미루어 보아, 작자 胡曾은 자신이 이해하고 있는 발음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 처가 식구들의 발음 상황이 오류로 여겨졌으므로, 이를 소재로 처가 지역의 方言음이 부정확함을 풍자한 것이다. 唐宋 시기의 詩歌에 나타난 用韻 상황으로 音韻體系의 변천 과정을 분석하는 연구 방법은 이미 학계에서 정형화된 방식이며 국내외에서 다양한 연구 성과가 축적되어 있다. 하지만, 胡曾의 《戲妻族語不正》은 詩句의 내용에서 方言 현상을 소재로 삼고 있으므로, 用韻 상황에 대한 분석보다 한층 더 직접적으로 音韻體系의 차이를 반영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다.

詩句 “呼十却爲石”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胡曾이 구사하는 方言음으로는 “十(-p)”자와 “石(-k)”자가 확연히 구분되는 발음인데, 처가 지역에서는 “十”자와 “石”자를 동일하게 발음하므로, 작자 胡曾의 입장에서는 처가 지역의 方言음이 부정확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풍자의 소재로 삼은 것이다. 이는 唐代의 특정 方言 지역에서 入聲韻 [-p]·[-k]의 相混 현상이 발생하였음을 반영하는 자료가 된다. 위에서 살펴본 施向東(1983)·周祖謨(1988)·金恩柱(2002) 등에서는 모두 [-t]·[-k]韻尾의 混用 현상이 검증되었지만, 본 자료에서는 [-p]·[-k]의 相混 현상이 명확히 제시됨으로써, 塞音韻尾의 弱化 및 消失 과정에서 [-t]·[-k] 혹은 [-p]·[-k] 등 각 韻尾의 混用 현상이 다양한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⁴¹⁾ 이

40) 《全唐詩》第870卷. 結句인 “總道是天因”에서 “天因”은 “天陰[하늘이 흐리다.]”의 오류 입을 나타내기 위한 표현으로, 陰(-m)자와 因(-n)자의 混用 현상을 나타낸다.

41) 이 詩는 入聲韻의 弱化 현상 이외에도 陽聲韻 [-m]·[-n]의 混用과 合併 현상도 반영하고 있다. 즉, 詩句 “喚針將作眞”에서 針(-m)자와 眞(-n)자의 混用과 “總道是天

처럼 구체적으로 [-p]·[-k] 混用 현상을 제시하고 있는 《戲妻族語不正》의 학술적 가치를 높이 살 수 있겠으며, 이 詩의 소재가 되었던 구체적인 方言 지역과 구체적인 시기를 고증할 수 있다면, 音韻學史 연구에 있어서 入聲韻尾의 消失과 변화 과정에 대한 새로운 사실을 보충할 수 있을 것이다.

자료 활용상의 한계로 인하여, 胡曾의 生卒年代에 대해서는 문헌상의 구체적인 기록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全唐詩》와 《唐詩品彙》 등의 기재사항에 따르면, 胡曾은 湖南 태생으로, 咸通年間(860-873)에 四川에서 관직을 역임하였다고 한다. 胡曾의 출생지와 활동 지역에 대한 기록이 湖南과 四川이라는 사실에 근거하면, 胡曾이 풍자하고자 했던 方言 지역을 湖南이나 四川의 특정 지역으로 추정해 볼 수도 있겠다. 물론, 이러한 추정에 대하여 신뢰도를 담보할 수는 없지만, 시대적 배경에 근거하여 당시의 교통 상황이나 지역 간의 교류 상황을 고려할 때, 胡曾의 처가 지역을 그의 출신 지역인 湖南이나 관직으로 활동하던 지역인 四川으로 추정하는 것도 일정 정도는 타당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의 자료 분석에 근거하면, 玄奘의 《大唐西域記》 梵漢對音 자료에 반영된 7세기 중엽 洛陽 지역의 中原方言과, 韓愈의 《進學解》에 반영된 9세기경의 北方方言에서 入聲韻의 弱화에 따른 [-t]·[-k] 混用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외에 胡曾의 《戲妻族語不正》에 따르면, 9세기 중엽 長江 유역의 湖南 혹은 四川의 특정 지역에서도 入聲韻尾 [-p]·[-k]가 混用되는 현상이 발생하여, 入聲韻의 弱화 현상이 中古漢語 시기인 唐代에 이미 광범위한 지역에서 다양한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V. 結語

본고는 入聲 혹은 入聲韻으로 지칭되는 音節의 귀속 문제와 入聲의 특징이 되는 塞音韻尾의 消失 과정에 대하여, 기존 연구 성과 및 문헌 자료의 다양한 견해를 분석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현행 학계에서 여전히 일치된 정론을 도출하지 못

“因”에서 陰(-m)자 대신 因(-n)자로 발음함을 풍자한 경우 등이 이 예에 속한다.

하고 있는 入聲의 귀속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 과정에 나타나는 인식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고, 入聲韻尾의 消失 과정에 대한 문헌 자료의 분석을 통해 中古漢語 시기인 唐代에 이미 광범위한 지역에서 塞音韻尾의 弱化 現象과 消失 過程이 다양한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검증할 수 있었다.

귀속 문제에 있어서는, [-p·-t·-k]의 세 종류 韻尾로 대별되는 入聲을 전통적인 시각에 따라 聲調의 한 부류, 즉 調類로 인정한 것인지, 아니면 韻尾의 차이에 따른 韻母 범주로 귀속할 것인지에 대해서 “入聲非聲”의 견해를 중심으로 찬반양론을 분석하였다. 岑麒祥(1943)이 “入聲非聲說”을 제기한 이후, 黃伯榮(1960)·宗福邦(1984)·楊信川(1997)·朱星一(2002)·夏中易(2007) 등의 다양한 후속 연구를 통해 入聲을 聲調의 한 부류가 아닌 韻母의 韻尾 문제로 간주하는 인식이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반면, 6세기 무렵 聲調에 대한 인식이 정립된 이후 십 수 세기에 걸쳐 확고한 전통으로 유지된 平·上·去·入 四聲의 분류 체계와 현대 方言의 音節 분류 방식에 근거하여, 陸雯雯·梁鳳居(2006)와 宋勇(2011) 등은 “入聲非聲說”을 반박하는 견해를 제기하였다. 이러한 “入聲非聲”과 “入聲是聲”의 찬반양론은, 入聲의 귀속 방식 자체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聲調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차이에 기인한 문제로 판단된다. 趙元任(1930)의 五度標調法 창안 이후 학계에서 정론으로 인식된 音高만을 聲調 분류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을 것인지, 아니면 전통적인 분류 방식에 따라 音高 이외에도 音長이라는 요소를 분류 기준으로 병행 적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본고에서는 여전히 재론의 여지를 남겨 두고 한층 더 명확한 결론을 도출해야 할 미결과제로 판단하였다.

中古漢語와 近代漢語를 구분하는 音韻變化 중의 대표적인 현상으로 인식되어 온 入聲 消失에 대해서, 근래의 다양한 연구 성과에 따르면 中古漢語 시기의 唐宋代에도 이미 入聲의 弱化 혹은 消失 현상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본고에서는 施向東(1983)·周祖謨(1988)·金恩柱(2002) 등의 연구 결과와 더불어 唐代 胡曾의 《戲妻族語不正》에 대한 분석을 통해, 7-9세기 무렵에 이미 광범위한 지역의 方言에서 [-t]·[-k] 混用 및 [-p]·[-k] 混用 등 다양한 양상으로 入聲韻尾의 弱化和 消失 현상이 진행되고 있었음을 검증할 수 있었다.

【參考文獻】

- 金成烈(2003), 〈入聲韻尾 消失에 대하여〉, 《국제학술대회》 제16회, pp.213-220.
- 金恩柱(2002), 〈唐代 入聲 韻部の 分化〉, 《중국인문과학》 제25집, pp.37-56.
- 金欣欣(2004), 〈《中原音韻》無入聲說代表觀點論析〉, 《山東師範大學學報·人文社會科學版》 2004年 第49卷 第1期(總第192期), pp.31-35.
- 羅常培(1933), 〈唐五代西北方音〉, 《歷史語言研究所集刊》甲種之十二.
- 羅常培(1949), 《漢語音韻學導論》(原刊 1949年 北京大學), 臺北:里仁書局, 1982年 初版.
- 唐健雄(2008), 〈河北獲鹿話的入聲韻母和入聲調〉, 《燕趙學術》 2008年春之卷 漢語言文字學, pp.15-20.
- 裴宰爽(2002), 〈宋代入聲字韻尾變遷研究〉, 《古漢語研究》 2002年 第4期(總第57期), pp.29-35.
- 宋勇(2011), 〈“入聲非聲”獻疑〉, 《西南科技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2011年 第28卷 第3期, pp.50-51, 69.
- 施向東(1983), 〈玄奘譯著中的梵漢對音和唐初中原方音〉, 《語言研究》 1983年 第1期, pp.27-48.
- 安奇燮(1986), 〈漢語 入聲 消滅 論議에 관한 提言(一)〉, 《중국인문과학》 제5집, pp.53-82.
- 楊耐思(1981), 《中原音韻音系》, 北京: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81年 第1版.
- 楊小衛(2010), 〈《集韻》、《類篇》反切比較中反映的入聲消變〉, 《三峽大學學報·人文社會科學版》第32卷 第1期, pp.68-71.
- 楊信川(1997), 〈試論入聲的性質及其演變〉, 《廣西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1997年 第1期(總第70期), pp.77-84.
- 王力(1936), 《漢語音韻學》(原名《中國音韻學》, 1936年, 上海商務印書館), 《王力文集》第4卷, 濟南:山東教育出版社, 1986年 第1版.
- 王力(1958), 《漢語史稿》(原刊 北京:科學出版社, 1958年), 《王力文集》第9卷, 濟南:山東教育出版社, 1988年 第1版.
- 王利(2008), 〈晉東南晉語的入聲舒化現象〉, 《語文研究》 2008年 第3期(總第108期), pp.62-65.
- 魏建功(1929), 〈古陰陽入三聲考〉(原載《國學季刊》 1929年 第2卷 第4期), 《魏建功文集》第3卷, 南京:江蘇教育出版社, 2001년, pp.176-274.
- 陸雯雯·梁鳳居(2006), 〈談談入聲問題〉, 《語文學刊·語言文字修辭(基礎教育版)》 2006年 第12期, pp.157-158.

- 尹芳烈(1974), 〈漢語「中古音」入聲의 消失과 派入現象〉, 《중국어문학(중국어문학보)》 제2집, pp.85-105.
- 李巧蘭(2012), 〈北方官話方言全濁聲母清化和入聲消失的次序〉, 《石家莊學院學報》第14卷 第4期, pp.66-69.
- 岑麒祥(1943), 〈入聲非聲說〉, 《圖書月刊》(重慶) 第2卷 第7期, pp.8-11.
- 趙元任(1930), 〈一套標調的字母 (A SYSTEM OF "TONE - LETTERS")〉(原載《語音學大師(Le Maître Phonétique)》, France Paris 國際語音學會 IPA 委員會, 1930年), 《方言》1980年 第2期, pp.81-83.
- 曹熙武(2001), 〈中古以來的入聲字的演變〉, 《중국어문학논집》 제16호, pp.277-294.
- 宗福邦(1984), 〈論入聲的性質〉, 《音韻學研究》第1輯, pp.455-470.
- 朱蕾(2007), 〈試論宋金時期北方話入近去聲〉, 《古漢語研究》2007年 第4期(總第77期), pp.18-23.
- 朱星一(2002), 〈中國語“入聲”의 聲調的 價値 再考〉, 《중국어문학연구》 제25집, pp.139-150.
- 周祖謨(1943), 〈宋代汴洛語音考〉, 《輔仁學誌》12卷, 1-2期合刊。(轉載《問學集》下卷, pp.581-655)
- 周祖謨(1988), 〈唐五代的北方語音〉, 《語言學論叢》, 北京:商務印書館, 1988年 第1版, pp.3-15.
- 夏瑞華(1989), 〈宋代入聲消變規律考察〉, 《鎮江師專學報·社會科學版》1989年 第4期, pp.39-42.
- 夏中易(2007), 〈論“入聲調的消失”——入聲論之十一〉, 《漢語史研究集刊》第10輯, pp.520-533.
- 賀巍(1995), 〈漢語官話方言入聲消失的成因〉, 《中國語文》1995年 第3期(總第246期), pp.195-202.
- 許寶華(1984), 〈論入聲〉, 《音韻學研究》第1輯, pp.433-446.
- 胡適(1929), 〈入聲考〉(原載《新月》第1卷 第11期, 1929年 1月 10日), 《胡適學術文集-語言文字研究》, 姜義華主編, 北京:中華書局, 1993年 第1版, pp.261-283.
- 黃伯榮(1960), 〈陽江話“入聲非聲”實驗報告〉, 《甘肅師範大學學報·人文科學》第1期, pp.123-128.
- 黃勇(1996), 〈漢語-t尾最後消失說〉, 《古漢語研究》1996年 第1期(總第30期), pp.17-20, 61.

【英文提要】

This paper focuses on analyzing various opinions from existing research outcomes and literature materials regarding the appertaining issue for the syllables designated as Entering-tone or Entering-endings vowel and the loss process of Entering-endings which characterize Entering-tone. Perception gap exposed during the discussion process has been recognized regarding the appertaining issue for Entering-tone, which is still not drawing any united opinion in the current academic circles. And it was verified that, through the analysis of literature materials on Entering-endings' loss process, the weakening phenomenon and loss process of Entering-endings had been already progressing in a variety of aspects in the extensive regions during the Tang dynasty, the era of Middle Chinese.

In terms of appertaining issue, analysis on pros and cons has been done centering on the opinion that "Entering-tone is not a type of Tone", regarding whether the Entering-tone, which is classified as three kinds of Coda including [-p], [-t] and [-k], should be recognized as the Tonal type according to traditional viewpoint, or should be appertained to the category of Vowels according to the difference in Coda. After Cen Qixiang(1943) presented the opinion that "Entering-tone is not a type of Tone", the recognition created a sensation, regarding Entering-tone as a problem of Vowels' Coda rather than as a category of Tone through a variety of follow-up studies including those of Huang Borong(1960), Zong Fubang(1984), Yang Xinchuan(1997), Joo Soungil(2002), Xia Zhongyi(2007), etc. On the contrary, Lu Wenwen and Liang Fengju(2006), Song Yong(2011), etc. opposed

to the opinion that “Entering-tone is not a type of Tone”, on the basis of Four-Tone classification scheme of Ping·Shang·Qu·Ru, which has been maintained as a firm tradition for the last dozen centuries since the recognition on Tone had been established around 6th century, as well as the syllable classification scheme of modern dialects. This kind of pros and cons, “Entering-tone is not a type of Tone” versus “Entering-tone is a type of Tone”, are judged to be not just the problem limited to the Entering-tone’s appertaining method itself but the problem resulting from the fundamental gap in perception on Tone. Regarding whether Pitch of sound, which has been recognized as sound argument in the academic circles ever since Yuanren Chao(1930) presented an opinion called The five degree Tone marking method, should be established as a sole standard in the Tone’s classification, or an element called Length of sound besides Pitch of sound should be applied in parallel as a classification standard according to traditional classification method, this paper judges it desirable to leave it as an unsolved case for which more definite conclusion should be drawn in the future.

And regarding the loss of Entering-tone, which has been recognized as a representative phenomenon among Phonological change which differentiates between Middle Chinese and Early Old Mandarin, it was confirmed through the various research results of late that the phenomenon of Entering-tone’s weakening or loss had already been progressing even during the Tang and Song dynasty of Middle Chinese period. In this paper, through the research results of Shi Xiangdong(1983), Zhou Zumo(1988), Kim Eunjoo(2002), etc. and analysis on Hu Zeng’s *Xi qizu yu bu zheng*, it was verified that the phenomenon of Entering-endings’

weakening and loss had been already progressing in the dialects of extensive regions during the Tang dynasty around 7th to 9th century, in a variety of aspects including the mixed uses of [-t] and [-k], [-p] and [-k], etc.

【主題語】

Tone, Tonal type, Entering-tone, Entering-endings vowel, Coda,
Entering-tone is not a type of Tone, Phonological change
聲調, 調類, 入聲, 入聲韻, 韻尾, 入聲非聲, 音韻變化

투고일: 2014. 1. 15 / 심사일: 2014. 1. 20~2. 5 / 게재확정일: 2014. 2. 10